

유생 반발 속 불교 중흥에 앞장선 철의 여인



태릉 봉분으로 가는 계단. 역사의 길이 만만이나 계단의 수도 많다.

태릉(泰陵)은

11대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1501~1565) 윤씨의 능이다. 왕후는 생전에 서삼릉에 있던 중종의 정릉을 봉은사 곁으로 천장하고 자신도 그 곁에 묻히고자 했으나 지대가 낮아 장마철에 물이 들어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묻혔다. 13대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의 능인 강릉(康陵)과 함께 태강릉으로 불린다. 사적21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 313-19, 면적 163만2281㎡(49만3765평)



중종 2계비 문정왕후 - 태릉

문정왕후의 별명은 많다. 조선의 측천무후, 조선의 악녀, 집부의 화신, 철의 여인 등으로 부르길 좋아한다. 보우는? 요승 보우라는 칭호가 귀에 익다. 그렇게 들고 배웠다. 수백 년 동안 전승된 것이라 불변의 진리로 여기며 슬한 사람들이 비난에 앞장서는 것을 저승지 않는다. 태릉에 들어서며 회한에 젖는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비이나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명종 조다. 길거리에 놓인 돌부리 저듯 불교를 폄해하고 승려를 구박해도 예사로운 것이 조선시대의 풍경이다.

명종이 12세에 즉위하여 문정왕후가 수렴정정을 하게 되자 불교 사태는 크게 변했다. 문정왕후가 독실한 불자였기 때문에 불교의 교세가 일어났다.

문정대비는 불교중흥을 위하여 대입을 맡을 고승을 탐색하여 양주 회암사의 허응 보우를 맞이했다. 명종 5년(1550) 12월, 선·교 양종을 다시 일으키고 승과를 부활했다. 봉은사를 선종본산으로, 봉선사를 교종본산으로 삼았다. 6년 6월에 보우를 봉은사 주지로 삼고 수진을 봉선사 주지로 삼았다.

명종 7년, 양종의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를 실시했다. 다시 양종이 부활되고 교단은 활기를 띠고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고려 보조국사와 더불어 조선 불교중흥의 대조사라 할 수 있는 서산대사 휴정도 이즈음 승과 출신이다. 사명당 유정도 그 후 승과에 의해 등용되었다. 문정대비가 보우선사와 함께 불교중흥을 위해 진력했지만 유생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다. 각지에서 보우 타도, 종단 및 승과 폐지의 상소가 빗발쳤다. 요승 보우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다 못해 성균관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우는 데모를 했다.

보우는 뒤에 도대 선사가 되었지만, 불행히도 명종 20년(1565) 문정왕후가 승하했다. 결국 보우는 잇따른 배불 상소와 유림들의 기세에 밀려 승지를 박탈당하고 제주도로 귀양 가서 제주목사 변함에게 괴살되었다. 이리하여 모처럼 교단 부활의 기세는 꺾이고 말았다. 15년간 활기를 보였던 불교중흥운동은 다시 빛을 잃는다. 그러나 그 운동의 영향은 매우 크다. 역대 왕실과 조정의 정치적으로는 적발을 외쳤으나 궁중의 왕후와 비의 숭불정신을 깊어지게 했다. 이 때 배출된 인물들에 의해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다.

명종 21년, 즉 문정대비가 승하한 이듬해 4월 양종과 승과가 폐지되고 도승법도 금지된다. 불교와 승려의 지위는 추락해 사역과 천대를 감수해야만 했다. 결국 불교는 산중으로 깊숙이 숨게 된다. 보우는 15세에 금강산 마하연암으로 출가했다. 그

뒤 금강산 일대의 장안사·표훈사 등지에서 수련을 쌓고 학문을 닦았다. 6년 동안의 정진 끝에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력을 얻었고, 대장경을 모두 섭렵하는 한편 <주역>도 공부했다. 재상 정만종이 보우의 인품과 그 도량이 크음을 조정과 문정대비에게 알려 문정대비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봉은사 주지에 취임하여 제일 먼저 문정대비로 하여금 <경국대전>의 금유생상사지법을 적용하여, 능침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훔친 유생들 중에서 가장 횡포가 심했던 황인정을 처벌했다.

봉은사와 봉선사에 방을 붙여 잡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킴으로써 유생들의 횡포를 막았다. 이러한 일은 조선시대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유생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끝내 조정에까지 비호되었다.

문정대비가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보우가 뒤에서 조종한 것이라 하여 1549년 9월 성균관 생원인 안사준 등은 요승 보우의 목을 베고 황인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강력한 건의를 조정에 올렸다.

선교 양종·승과제도 부활로 교단에 활기

직접 발탁한 보우선사와 佛法보호에 전력

그러나 문정대비는 "이유 없이 승려들을 괴롭히고 법당에 난입하여 도둑질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이 격정된다"는 이유로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부터 문정대비·보우와 유생들 사이에는 치열한 암투가 전개되었다.

봉은사와 봉선사에 붙여진 방을 계기로 하여 그 뒤 전국의 각 사찰에는 모두 이러한 공고문이 붙여져 보호를 받게 되었다. 1550년 12월 문정대비로 하여금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는 비방기를 내리게 함으로써, 다음해인 1551년 5월 선종과 교종이 부활되었다.



태릉을 지키는 무인석.

그러하여 6월 봉은사가 선종의 본사로, 봉선사가 교종의 본사로 지정되었고 보우는 판선종사로 대선사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11월 도승시를 실시하게 하여 전국 승려들의 도첩제도를 부활시켰다. 이 도첩제의 부활에 따라 전국의 26여 승려들이 도첩을 받았다.

또 1552년 4월 승려 과거시험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1504년(연산군 10)에 폐지되었던 승과제도를 부활시켰다. 선교 양종과 승과제도가 부활됨으로써 승려들의 자질이 향상되었음은 물론 휴정·유정 등과 같은 고승들이 발탁되었다.

그러나 유생들은 선교 양종과 도첩제·승과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보우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를 계속 올렸다. 그리하여 승정원·홍문관·예문관·사헌부 등에서 매일 번갈아 상소를 하였고, 좌의정이 백관을 인솔하여 계를 올렸다.

선교 양종을 부활하려는 문정대비의 비방기가 내려진 뒤 6개월 사이에 상소문이 무려 423건이나 되었고, 역적 보우를 죽이라는 것이 75건에 되었다. 그러나 보우는 "지금 내가 없으면 후세에 불법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라는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불법을 보호하고 종단을 소생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각종 제도적 장치의 결과로 종단이 안정된 기반을 가지게 된 1555년 9월 보우는 판사직과 봉은사 주지직을 사양하고, 춘천의 청평사에서 수행 정진했다. 그러나 종단의 일각에서 선종·교종의 대선들이 자리다툼을 하게 되자 1560년 다시 선종판사와 봉은사 주지 직책을 맡았다.

운부사에서 왕자의 태봉이 있는 산의 나무를 험부로 베어 사원을 증축한 사건에 연루되어 판사직을 박탈당하고 봉은사에서 물러났다. 그 뒤 세심정에 머물면서 수행하였고, 같은 해 12월 다시 선종판사로 임명되어 봉은사에 머물렀다. 회암사 중창사업에 착수하여 1565년 4월에 끝내고, 그 달 5일에는 낙성식 겸 무주대회를 개설했다.

4월 문정대비가 죽고, 대비의 장례를 마친 유생들은 곧바로 보우의 배척과 불교탄압을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잇따른 상소에 명종은 보우의 승지를 박탈하고 서울 근교의 사찰 출입을 금지했다. 이러한 미온적인 처사에 만족할 수 없었던 전국의 유생들은 물론 정승들까지 보우를 죽일 것을 건의하자 보우는 한계선 설악사에 은거했다. 율곡 이이가 <논요승보우소>를 올려 그를 귀양 보낼 것을 주장함에 따라 명종은 보우를 제주도로 귀양 보냈다.

보우는 1565년 6월 12일에서 7월 28일 사이에 붙잡혀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제주목사 변함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다. 보우의 죽음이 서울에 알려진 것은 10월 15일이었다.

보우는 억불정책 속에서 불교를 중흥시킨 순교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는 선교일체론을 주장하여 선교 교를 다룬 것으로 보고 있던 당시의 불교권을 바로잡았고, 임정설을 정리하여 불교와 유교의 융합을 강조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어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 량 :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 의 : 2007년 9월 16 ~ 27일(10일)
- 장 소 :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 작 :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 격 : 19만원(교재 포함)
- 교 재 : 합허득통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 (법공양 권, 2만 5000원)
- 구입문의 : 02)2004-8397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공사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사철(대우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 칼라지붕공사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미움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 주요 수록 내용 ■
꿈 이야기
성기가 맑을 만큼요
꿈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꾸고 싶어요
실수의 흔적
처처와의 불꽃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성행수술 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 번 결혼한 검사님
인턴과 세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 이야기
넌치는 정리를 주재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인생을 바꾸는 법

■ 책속 부록 ■
▶ 생활로 할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권 에세이
▶ 인물 보는 법
▶ 시(時)로 보는 법
▶ 날씨로 손(손) 보는 법
▶ 심재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통일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원곡(당포)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